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개막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국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2016 아태 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가 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달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첫날 민속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메레스와르 갈라 국제인류문화유산관 관장이 기조발제에 나섰다.

첫날 오후 일정으로는, 참가국들이 자랑하는 무형유산과 보존·전승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

내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얍(Yap)이라는 섬나라에 위치한 비정부가인 와게이(Waigey) 대표는 전통 카누 제작 기술과 항해술 등 태평양의 전통지식을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승하는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례로 국립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진흥센터 등의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조기상 페노메노 대표가 참여해 전통공예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컨퍼런스의 둘째 날인 4일에는 △무형유산보호 담론의

창출과 무형유산 NGO △무형유산 교육 및 인식제고와 NGO의 역할 △도시재생, 지역사회 발전과 무형유산 NGO △문화산업 및 지속가능 관광과 무형유산 NGO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 및 현장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분과세션의 결과 보고 및 전체 토론을 통해 결과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자부하고 있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무형유산 NGO 활동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무형유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최식은 완주 창포마을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과 안동 하회별신굿, 전주시 거주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여성 무용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나산화 문화재청장의 환영사와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다카사무소 소장의 축사, 허권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의 개회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 나서

운영방안 개선 고객설명회

전주시가 장애인과 임신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지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전주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8일 평화도서관 강당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고객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내용과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콜택시 및 셔틀버스 증차 공급 등 연차적 집행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으로부터 개선방안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예약일정 7일전으로 단축 △예약방법 일 2회 확대 △연장 근무 및 수요시간대 집중 배차 △관제 시스템을 통한 공차시간 감소 등을 추진, 지난해보다 배차효율을 크게 (48%) 높였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는 장애인콜택시가 기존 34대에서 42대로 늘어나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지콜 운영 방식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작은 소리까지도 참조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생존권인 이동권 보장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지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와 개선방안 의견제시는 전주시 시민교통과(063-281-2542) 또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지콜 센터(063-271-27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3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공동 시국선언을 갖고 최순실(60·최서원)을 개명(씨)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책임 지고 퇴진하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 시국선언문 발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맺고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들어갔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 발표에는 전북민족에술인총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562명의 시국선언 동참 확인서를 받은 연대회의는 이날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로 현 상황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대통령 하야와 탄핵 촉구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한낱 사적인 도구로 전락시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지난 4년간 자행한 악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 일당의 엽기적인 국정개입과 안하무인식 권력형 비리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새로운 총리를 내정하고, 국민들의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사과와 퇴진 없이 여론의 눈을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속임수는 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영재 기자

전국 활동 30대 절도범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상습절도 피의자 서모(36, 남)씨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모씨는 무직인자로 지난 8월 22일 완산구 효자동 소재 A 식당에 침문으로 침입해 30만원을 절취했다. 또한 전주, 천안, 계룡, 아산, 경주, 진주, 경기광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19회에 걸쳐 2,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옛 직장 침입해 현금 훔쳐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을 불법 침입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절취한 윤모(20, 남)씨를 야간조물침입절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과거 본인이 근무하던 덕진동 소재 페스트푸드점에 근무 당시 받은 마스터카드를 이용, 6회에 걸쳐 금고에 있는 현금 133만원을 절취했다. /김민근 기자

덕진구, 저소득 아동 축구 관람

덕진구청(구청장 정태현)은 전북현대 모터스 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초청으로 관내 저소득 아동 50여명과 함께 지난 2일 저녁 7시 K리그 클래식 '전북 현대'와 '상주 상무'의 경기를 관람해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내 기업·단체의 특성과 역량이 맞는 결연사업을 개발해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덕진구 감동 나눔 프로젝트' 5단으로 기획됐다. 이날 전북현대 축구단으로부터 관람권 50매를 후원받아 저소득 아동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호스피스 후원 일일바자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은 3일 병원앞센터 앞 쉼터에서 호스피스 후원을 위한 일일바자회를 열었다.

전북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실이 주관한 바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의 입원환자 및 가족들의 지원사업 등의 기금마련을 위한 자리로 올해 5회째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직접 만든 떡과 차, 간식 등 각종 먹을거리를 판매했으며 행사 취지에 뜻을 같이 한 병원가족들과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는 병원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 전시가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권한속 간호사는 "좋은 취지에 동참해준 병원 가족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행사 수익금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을 후원하는데 쓰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오늘 전주시장기 테니스대회

전주시가 운동하기 좋은 가을철을 맞아 전주시장배 테니스대회와 전주시장배 축구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전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고 전주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3회 전주시장배 테니스대회'가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 덕진체련공원과 전북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첫날 초등부 남·여 선수 25명과 중등부 남·여 선수 25명이 참가하는 학생부 경기가 진행되며, 5일에는 전국 동호인선수 100여 명이 참가하는 동호인부 단식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통합축구협회에서 주관하고

전주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제24회 전주시장기 축구대회'가 오는 6일과 13일 등 2일간 전주 완산·덕진체련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주시 축구 동호인 클럽 36개 클럽 소속 선수 1000여명이 참가해 단합부와 화합부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자웅을 겨루게 된다.

안동일 체육진흥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테니스와 축구 동호인 여러분들이 평소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 거두기를 바란다"면서 "안전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 전 선수들에게 부상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이번 대회가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사랑스러운 도시 품격의 전주